

01 교회소식

기사(奇事)로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교회 창립 35주년 축하 행사 및 5등급 허리케인 '어마'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약화, 소멸된 소식.

02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전쟁과 재앙의 소식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아니 될 것도 되게 하는 믿음!

청소년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발간과 치료받고 응답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04 간증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은 목회자 및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만민뉴스

제808호 2017년 10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운 곳,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해변가 연회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는 10월 6일(금) 밤 11시부터 열리는 전야행사를 비롯, 10월 8일(주일) 오후 3시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전야행사는 1부 예배 후 2부에 다큐 뮤지컬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와 함께한 만민의 35년 역사를 회고한다. 본 행사는 1부 기념예배 후 축하공연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성도들이 엘리야, 에녹,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와 함께하는 금모래 은모래 해변가 연회장에서의 행복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금번 행사는 예능위원회 소속 연합 퍼포먼스 팀을 비롯해 250여 명의 출연진과 외부 공연 전문 스태프, 내부 스태프 200여 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행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찬양 11곡이 새롭게 추가되어 감동을 더해줄 것이다.



허리케인 '어마', 권능의 기도로 소멸되다!

지진, 허리케인, 가뭄,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7.1의 강진으로 3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멕시코 지진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돕던 한 사람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네요. 신이 우리에게 화가 났나 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고자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 첫 사람 아담을 정성스레 지으셨고, 악인의 멸망도 기뻐 아니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오래참고 기다려주시며, 오늘날에도 천기를 움직이셔서 인생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권능을 펼쳐 보이고 계신다.

지난 9월 초, 세계 강대국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허리케인 '어마'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말, 미국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를 강타한 '하비'는 '어마'보다 낮은 등급의 허리케인이지만 60명이 넘는 사망자에 180조가 넘는 피해액을 기록했기에 '어마'에 대한 미국정부와 국민들의 공포심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요청하는 이메일이 쇄도하였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과 성도들,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영적외교단체

회장)와 마크 바잘레프 목사(월드성결센터),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겐나지 자발리 목사(뉴욕 내 러시아계 최대 교회 담임)와 러시아계 여러 목회자가 보낸 것으로, 허리케인 '어마'로부터 보호받도록 이 목사의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이재록 목사는 현지시각 9월 8일 오전 6시 45분에 기도해 주었다. 그 뒤 '4등급으로 플로리다에 상륙한 후 4등급을 유지한 채 동부해안을 타고 북상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표1)과는 달리, 내륙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3등급

으로 떨어지고 상륙 직후 2등급, 1등급,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어 현지시각 9월 12일 소멸되기에 이르렀다(표2).

더욱이 플로리다 동쪽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들이 모여 있고 서쪽은 국립공원과 습지들이 있어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인데, '어마'가 진로를 서쪽으로 변경함으로써 피해가 적을 수 있었다. 이 목사가 기도해 준 대로 미국이 큰 재앙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이 목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보호받는 큰 은혜를 체험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감사 서신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관련 기사 4면).

표1) 기도받기 전_ 9월 7일(목) 오전 5시



▲ 앞으로 카리브해를 지나 플로리다 동부 해안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표2) 기도받은 후_ 9월 10일(주일) 오후 5시



▲ 예상과 달리 진로를 서쪽으로 바꿔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소멸.



당회장 이재록 목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험하다 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마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고요하고 잔잔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안을 모든 자녀에게 주시고자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죄와 불법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만큼 마음에 참 평안과 감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2. 영원한 것, 진리를 구할 때 위로 부터 임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했습니다.

주의 법 곧 진리를 사랑하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 큰 평안이 있으며 설령 장애물이 있다 해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해 나가니 순간에 장애물이 제거되고 오히려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자가 되시니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安然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신 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기에 재앙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을 믿으며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해도 마음에서 미움, 다툼, 시기, 교만, 험기, 자존심,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등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이 곤고합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미움이 요동하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더 좋은 것을 누린다 싶으면 시기 질투로 심사가 꼬이고 불편해집니다. 이처럼 자기 안에 비진리가 많은 만큼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 없습니다. 욕의 마음들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를 마음에 채워갈 때라야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가난해도 이웃이 큰 축복을 받았다면 자신이 축복받은 것처럼 즐겁고 행복할 수 있고, 시기 질투가 없으니 고요한 물처럼 평안하고 낙심하거나 힘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존심과 험기가 없으면 싫은 소리를 하며 짜르다 해도 불편하고 힘들어할 일이 없지요. 억울하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에게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온전히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 마음에서 비진리를 하나하나 버려나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더 좋은 천국의 소망이 가득 임하므로 얼굴에는 영적인 빛이 납니다.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찾아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만큼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영원한 진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3.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평안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취하며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죄와 싸워 버리려고 노력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기에 참된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서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온 만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육간에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공간, 목자의 공간 안에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심은 것마다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어날 길이 없는 어려움에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견디기 어려운 핍박을 당할 때도 있으며, 대적들이 온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막막한 처지에 놓

일 때도 있지요. 간신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나름대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연단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고난에 지쳐서 낙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중심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반드시 연단의 끝이 있고 그 연단에 승리한 결과는 축복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물론 연단 가운데 잠시 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을 볼 때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깊은 중심에서는 평안이 떠나지 않지요. 연단이 크면 클수록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이것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주실까?’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천국 소망을 주시며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마음의 성결을 이루며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재앙 소식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죽음 등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문제까지 마음에 품고 장래의 일과 불의의 사고까지도 대비해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1.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평안’이란, ‘아무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원하지만 쉽게 얻을 수 없으니 더 많은 재물과 명예, 권세가 있으면 평안할까 하여 쌓고 또 쌓아도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환란이나 재앙, 질병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한 것을 깨닫게 되지요. 또 의식주가 해결되고 지금은 평안하다 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참 평안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명예나 권세를 얻고 재력이 되었다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월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아침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 9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발간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110번째 이재록 목사의 저서로, 아홉 번째 청소년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이 발간되었다. 17세 히브리 소년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 언약의 통로가 된 요셉,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발견하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학생 교재이다. 총 1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Part 1 히브리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로',

'Part 2 만민의 생명을 구원한 요셉의 지혜', 'Part 3 하나님 언약의 통로' 세 파트로 나누어 있다. 여기에 영의 마음을 이룬 야곱과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요셉의 선을 비교한 Tip 등 성경 지식과 흥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한 걸음, 한 걸음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생각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늘 좋은 것만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 청소년들의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 만에 심장이 정상이 되고 강건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로버트 존슨 선교사 (70세, 미국 남부지역)



6월 24일(토) 오후, 저는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가슴 한복판에서 짝조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목과 안면좌측이 마비되는 증상과 함께 약간의 통증이 가슴으로부터 팔 위쪽으로 전해졌지요. 그래서 아내가 대신 운전하고,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며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한 몇 가지 검사 후,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저는 즉시 시

내에 있는 심장전문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네는 한국 만민중앙교회에 제 상황을 알렸고, 기도를 요청하는 서신이 산상기도 중에 계신 당회장님께 전달되어 저는 기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인 25일(일), 병원에서 혈액 및 정밀 검사를 하고, 26일(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70세인 제 심장이 정상이며, 깨끗하고 튼튼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심장이라며 놀라워했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기도로 심장이 정상이 되고, 더욱 강건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게임 없인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게임이 싫어졌어요!”

권영광 아동 (12세, 초등 5학년)



스마트폰이 생긴 뒤로 저는 아침마다 눈만 뜨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친구들을 불러 멀티플레이 게임을 하면 너무 재미있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난 8월에 열린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해 첫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을 죄 짓게 조종한다는 생

각을 하니 갑자기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의 게임들을 다 지워 버렸지요. 그 뒤 ‘교감신경향진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손과 발에 열이 많아 연필을 잡기 힘들었고, 한겨울에도 옷을 벗은 후 땀자리를 깔고 잠을 자야 했으며, 양말도 신을 수 없었고 여름에는 얼음주머니가 있어야 잠들 수 있었는데 수련회에 가서 게임을 끊고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은 뒤로는 몸에서 열이 나는 증상이 모두 사라졌지요. 열이 나지 않으니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진 것 같고, 이젠 피아노 반주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팔관이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잉태의 축복을 주셨어요”

박유나 집사 (45세, 3대대 31교구)

2014년 4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저는 임신이 되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2015년 5월, 산부인과에서 난관(나팔관) 조영술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나팔관이 막혀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명한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그해 12월, 저희 부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잉태를 놓고 기도를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듯하자 다시 세상 방법을 찾았지요. 2016년 말, 큰 병원의 복강경 시술 전문의를 찾아가 난소 기능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난소 기능저하’로 모든 것이 정상일지라도 자연임신 확률은 10% 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신에 대한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그제야 태의 문을 열어주시라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5월 초, ‘잉태의 축복’을 마음에 품고 남편과 함께 금식하며 가정예배를 드리던 중 저는 통회자복과 감사로 눈물이 범벅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당회장님을 통한 권능의 기도로 무수한 사람이 질병을 치료받고 잉태하는 등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듣고, 때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어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했고, 이런 제단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지요. 한 달 뒤, 생리 예정일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 임신테스트를 해 보니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지요. 6월 15일에는 산부인과 확진 결과 “임신 6주이며 아기집도 보이고 난황도 보이고 심장소리도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로 인해 저희 부부는 물론 가족들도 행복해합니다. 영육 간에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허리케인의 공포에서 보호하신 권능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찌됐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해서 도시는 텅 비었고 상점과 주유소들도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월마트와 맥도날드까지 전 부문을 닫았습니다.

9월 10일 주일 아침까지만 해도 일기예보 상 허리케인이 저희 노스포트를 관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록 박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기에 그 기도로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어 피난을 가지 않고 월드성결센터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어떤 의심 없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정전되고 인터넷도 끊겼으며 오직 전화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 플로리다 네이플스를 지나던 ‘어마’가 갑자기 경로를 틀어 이동하면서 세력이 급속히 약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허리케인 ‘어마’의 세력이 약화되지 않고 계속 북상해 왔다면 저희 성결센터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9월 12일 미국 플로리다 주 노스포트 월드성결센터 마크 바잘레프 목사

“플로리다에 사는 성도들과 가족까지도 무사합니다”



9월 4일(월) 아침, 플로리다에 친척을 둔 저희 교회 도나번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8월 말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보다 엄청 큰 허리케인 ‘어마’가 플로리다로 온다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됐냐고 했습니다. 9월 6일, 저는 플로리다에 사는 성도들도 있기에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당시 TV에서는 ‘어마’가 250마일로 5등급 허리케인이 되어 카리브해에 있는 여러 섬을 휩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급기야 플로리다 주정부는 대피를 명하여 650만 명이 이동하였지요. 모든 쇼핑센터의 상품이 품절되고 자동차 피난 행렬이 끊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뒤, ‘어마’는 플로리다 동쪽으로 올라갈 것이라 했던 예상을 깨고 중앙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하더니 이제는 서쪽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쿠바를 지난 ‘어마’는 갑자기 기세가 꺾여 플로리다에 상륙하여 2등급, 1등급, 이후 일반 폭풍의 형태로 약화되더니 플로리다를 지나갔습니다.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플로리다 서쪽 노스포트에 살고 있는 저희 교회 발렌티나 골로비나 성도는 집 주변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손상을 입지 않았으며 “허리케인 어마가 시내 전체를 지나갔는데도 완전히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입니다.”라고 기뻐했습니다.

9월 12일 미국 뉴욕 뉴욕인태내셔널만민교회 심제임스 목사

“당회장님의 기도가 여러 도시와 교회들을 살리셨습니다”



9월 4일(월) 이른 아침부터 “엄청나게 큰, 역대 최고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접근해 오고 있는데 곧 있으면 뉴욕에도 오게 될 것입니다.”라는 목회자들의 연락을 받았지요. 최고등급의 허리케인 ‘어마’로 인해 목회자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9월 6일, 저는 뉴욕에 있는 러시아어권 목회자들의 요청으로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 저와 제 아내 올레사는 목사의 권능 앞에 그 어떠한 허리케인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기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일기예보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에 일요일 아침쯤 도달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전 주 화요일 저녁과 수요일 아침부터 사람들은 비상식량을 마련하기에 바빴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달아나기 바빴지요. 그러나 ‘어마’는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플로리다 반도의 서쪽으로 진로를 틀어 엄청난 피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텍사스나 플로리다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만 당회장님과 같이 여러 도시와 교회들을 살리는 역사를 베푸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9월 13일 미국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비탈리 피쉬버그 목사

“당회장님께 기도를 부탁드린 뒤, 엄청난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9월 6일), 허리케인 ‘어마’는 저희가 거주하는 플로리다 주 동남쪽에 위치한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하알리아 지역을 포함한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리브해를 지나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며 최대 초속 105마일(160 km)의 바람과 비를 동반한 채 플로리다 주의 중앙과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고 있었지요. 저희가 거주하는 마이애미의 북동쪽은 플로리다 주에서도 많은 인구가 모여 있는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일기 예보대로라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상 속보를 듣고 저희 부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뒤 허리케인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에서 동쪽 경계선 대신 방향을 틀어 서쪽 경계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상 속보를 듣게 되어 저희는 대피하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토요일(9월 9일) 밤 일기예보에서 저희가 거주하는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는 허리케인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9월 14일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루이스, 제시카, 제니시스 에스텔라 가족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영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백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호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학로 22, 은성빌딩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릉로 18, 아람B/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